

동해시, 미세먼지·폭염 저감 '생활환경 숲' 조성



1 망상 오토캠핑리조트 2 천곡항금박쥐동굴 3 촛대바위

강원 동해시는 미세먼지와 불볕더위를 줄이는 생활환경 숲 2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. 4억원을 투자해 5월 말까지 동해 웰빙레포츠 타운과 망상~노봉 굴다리 등 2곳에 1만㎡ 규모 생활환경 숲을 조성한다.

단풍나무, 낙우송, 사철, 남천 등 7천200여 그루를 심고, 시민이 쉬어갈 수 있는 보행 매트와 벤치도 설치하기로 했다. 또 잡초 제거와 관수, 현장 점검을 통한 시설물 보수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.

시 관계자는 “생활환경 숲 조성으로 도시의 균형 있는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미세먼지와 폭염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추암해변 철도 육교 오는 6월 준공

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비좁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강원 동해시 추암해변 진입로가 새롭게 단장된다.

동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첫 삽을 뜬 추암해변 가도교(철도 육교) 확장공사가 오는 6월 말 준공 예정이다. 현재 공정률은 85%에 이른다.

한국철도시설공단과 동해시는 48억원을 투자해 길이 12m, 폭 15.7m, 높이 4.5m의 통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진행해왔다. 확장 공사가 끝나면 추암해변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한섬, 해수부 마리나항만 예정 구역에 선정

동해시는 해양수산부의 제2차(2020~2029)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천곡동 한섬이 예정 구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.

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다.

시는 천곡항 한섬을 마리나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2018년 9월 해양수산부에 수요조사서를 신청, 이번에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다. 시는 천곡항 일원 2만㎡에 100여척의 요트 계류시설을 비롯해 클럽하우스, 휴게·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.

시 관계자는 “마리나 시설과 한섬 유원지를 연계한 관광지를 개발해 해양 관광 도시로서 입지를 구축하겠다”고 설명했다. ▼

캠핑특별시 동해시



서울과 2시간대! KTX 서울-동해선

강성관광개편지 동해여행 코스 안내



추암촛대바위 출렁다리



추암오토캠핑장



천곡항금박쥐동굴



동해무릉건강숲



독호등대&눈골담길&바람의 언덕



동해러시아대게마을



무릉계곡